

놀면서 공부하자~! 모두가 행복한 에너지 놀이터



□ 개요

- 기관명 : 청주 방서지역아동센터 등 14개 지역아동센터

<수혜기관 현황>

- 설립목적 :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
- 주 소 :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93 등 14개소
- 인원현황 : 지역아동센터 14개소 초·중등 학생 258명

- 일 시 : '19.5.27.~9.19(에너지놀이터), 12.19(크리스마스 이벤트)
- 내 용 : 경력단절여성을 강사에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대상 에너지 체험·진로교육 재능기부
- 참석자 : 공단 5명, 유관기관 24명*
 - * 지역난방공사 4명, 창의수업연구회 11명, 청주녹색소비자연대 4명
- 작성자 : 세종충북지역본부 최설 대리

□ 내용

- 우리가 지역 내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?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? 몇 차례의 시민단체와의 회의를 거친 뒤 내린 결론은 소외 계층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형 에너지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.
강사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. 우리 세종충북지역본부

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이었습니다.

경력단절여성이 본사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에너지 강사 양사성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지자체의 지역아동센터 추천을 받아 공문으로 참여 신청을 받고,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.

떨리는 첫 번째 수업에 공단 담당자로서 신재생 보드게임을 진행하는 청주 용암지역아동센터 수업에 참여 해 보았습니다.

매우 정신없고 떠들석하는 와중에 선생님이 게임을 하고 우승팀에게는 선물을 준다는 말에 아이들은 이내 무서운 집중력과 약간은 거친말(?)을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.

“앗싸~!”

“아오우~~~C!! 한 칸만 더하면 되는데!!”

4줄이 완성되면 승리하는 보드게임 중 험한말을 내 벨은 후 외부사람(저)의 눈치를 힐끗 보는 순수한 아이의 모습에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더니 머쓱하게 눈웃음으로 화답하는 개구쟁이 초딩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.



이 보드게임은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소했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알고 나아가 관련 직업군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 되어서 참 유익한 교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한 친구들끼리 협동심을 발휘해야하는 팀플레이를 하며 서로 이해하고 결국에는 “야~ 축하한다~!” 하며 박수 쳐주는 모습에 아이들이 대견스러웠으며 무엇보다, 제가 예상했던 것 보다 태양광 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공단의 미래세대 교육 성과에 감탄했습니다.

다음시간은 “나만의 태양광 LED램프”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.

이 교구는 본인이 직접 꾸미고 빛을 받으면 멋진 램프가 완성되는 교구 였습니다. 같이 만들던 친구가 등이 완성되고 불을 켜는 순간 “와아..” 하며 반짝거리는 눈으로 미소짓던 모습이 제 뇌리에서 잊혀 지지가 않습니다.



<태양광LED램프 만들기>

이렇게 첫 번째 공동 수업을 마치고는 수업내용과 아이들의 반응은 너무 좋았지만, 복지시설인 아동센터에 빈손으로 찾아갔던 것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.

그래서 두 번째 공동 수업때는 센터 운영물품과 아이들 학용품 등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 보였습니다. 별거 아닌 것에도 너무나 큰 환영을 해주셔서 몸둘바를 몰랐습니다. 이번에도 에너지 절약 교육과 체험교육을 함께 참여하고 어느새 마음을 연 아이들과 단체사진을 찍으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. 이때 창의수업 연구회와의 미팅에서 지역아동센터 수혜를 기존 10군데에서 4군데 확대하여 총 14군데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


<물품전달>



<에너지교육>



<단체사진>

어느덧 계획했던 “모두가 즐거운 에너지 놀이터” 프로그램은 끝나가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.

한해를 마무리 하는 와중에 사회공헌 담당자인 저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. 바로 방서지역아동센터 친구에게 꼭 다시 찾아오리라는 약속을 했던 일이었습니다.

저는 염치없게도 남은 예산을 싹 긁어모아 팀장님께 한번더 가야겠다는 뜻을 전달하였고, 이번에는 팀장님께서 지역 거대자본인 지역난방공사까지 섭외해 주셔서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온누리상품권까지 양 손 가득 무겁게 깜짝이벤트를 했습니다. 우리는 자칭 '에너지산타'가 되어 다시 한번 오겠다는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.



<에너지 교육>



<산타의 선물~ 그렇게 좋아?>

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의 그 기분은 경험자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하다는 인사와 아이들의 눈빛에서 내가 힐링 받는 이 기분! 내년에도 더 많은 아이들과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자랑스러운 KEA사회공헌 담당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고 한해를 마무리 합니다.

- 에필로그 : “모두가 행복한 에너지 놀이터”에 물품지원 및 재능기부를 하시려면.. 전화 : 043-296-0362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
- 참고사항 : 수혜자 뿐 아니라 센터를 운영 담당자, 교육 운영자 등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질 좋은 재능기부에 중요합니다.
-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: 다시 오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.